

본문 : 마가복음 8 장 34-35

제목 :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 1. 기독교 전통으로서의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주전 10 세기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통입니다.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에 실재로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재를 발라 주는 이는 창세기 3 장 19 절 말씀을 말하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재를 바릅니다 .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의 수요일은 우리가 흙에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40 일을 카운트합니다. 40 일이 지난 다음날이 주일인데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이 10 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은 40 이라는 뜻이겠지요.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절 전의 40 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부르면서 이 시간을 매우 특별하게 보내면서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냐구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 사순절을 기념해 온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순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올해 겨울은 그래도 제법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들도 겨울에는 이파리 하나도 없이 추운 겨울을 버팁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파란 이파리가 다시 돋아 나고, 죽어 있는 줄 알았던 개구리같은 생명들도 다시 고개를 내밀죠.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은 더욱 반가운 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쁜 부활절을 맞을 수 없는 겁니다. 어때요, 사순절을 잘 보내야겠지요?

## 2. 죄와 싸우는 시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녀왔던 분들은 많이 당황해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생각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이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 들어 볼래요? 창세기 2 장 17 절에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구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로마서 6 장 23 “죄의 삯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죄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부활이 선포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를 용서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요? 저는 죄를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봅니다. 남들이야 어찌 되든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면 죄라는 것도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외딴 섬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나쁜 생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죄가 심각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 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될 때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인간관계를 전제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듯,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도덕이지요.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이 죄와 싸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 3. 자기를 부인하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이 두 가지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오늘 날로 치면 전기 의자인 거지요. 나를 죽이는 사형틀을 지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한 없이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 장 38 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최고의 예는 빌립보서 2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더 크신 분과 연결되어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와 연결될 때 우리의 헛된 욕심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아래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 큰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붙잡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밤하늘의 드넓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요. 큰 세계와 연결되어질 때에만 헛된 것을 버릴 용기가 생기는 법이죠. 사순절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만납니다.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려 한강이 됩니다. 나를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순절은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의 헛된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자기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순절에 세 가지 영적 실천을 해왔습니다. 기도, 금식, 자비의 실천입니다.

사순절의 영적 실천 중 첫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기 전, 오보에의 A 음에 맞추어 자기 소리를 조율합니다. 기타를 치기 전에도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절대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기준에 하나님을 조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택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겁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지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수요 기도회 시간에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실천은 금식입니다. 먹을 것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내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인정하는 훈련이 금식입니다. 절제의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금식도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낙이 온라인 미디어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속을 산책을 한다거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사야서 필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타자가 익숙하여 손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귀한 책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탄소 금식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절제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실천이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실천은 자비의 실천, 또는 자선입니다. 자선은 두번째 금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 먹지 않고 남은 음식값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지요. 저 어렸을 때 부엌에는 성미(거룩한 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쌀을 거기에 옮겨 담습니다. 항아리가 채워지면 어머니는 그것을 교회에 가져가 드렸습니다. 교회에도 성미를 모아 담는 더 큰 항아리가 있었지요. 그 성미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 저금통의 이름이 Tzedakah 입니다. 켄다카는 공의 라는 뜻이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죠. 공동체에서 이뤄지는 분배의 정의가 바로 켄다카인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켄다카입니다. 이 저금통이 채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켄다카 저금통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사순절 기간 사랑의 나눔들이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 장 21 절에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쓰여지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귀한 재물을 나누는 실천은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 5.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사순절은 우리가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더 큰 세계를 얻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입니다. 내안으로 구부러지는 자기 중심성을 거슬러 다른 이들을 향해 리치 아웃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부인은 자기의 작음과 무지를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겸허한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옳다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큰 소리 치지 않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상징합니다. 나를 선물로 드리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다양한 영적 실천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낸 후에 찬란한 부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